로컬뉴스

정읍농기센터 영농정착교육 수료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는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6일 교육생 41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신규농업인(귀농)과정을 운영하여 7년에 걸쳐 3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자체강사와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귀농귀촌 방법과 기초적인 영농기술,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본 교육의 수료생인 김성근씨는 "귀농귀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귀농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귀농생활을 함에 있어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은 새로운 기회와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이며, 농촌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면서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농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 넣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귀농인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 호응

김제시(시장 이건식)에서는 8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했다. 이번 명예 실과장제는 주부, 농업인 등 일반시민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김제시청 1일 명예실과장으로 위촉되어 김제시 28개 각 실과를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명예 실과장 28명은 이건식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건식 시장은 "새만금 사업, 지평선산단,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김제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시 주요현안 사업인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을 방문하여 작년 10월 26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방조제를 둘러보며 새만금국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 하였다.

이날 1일 명예 회계과장으로 참여한 장삼이씨는(신풍동) "오늘 체험을 통해 공직자들의 행정 수행에 대한 이해와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느꼈으며 앞으로 명예실과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김제시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건축조례 개정 통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정읍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행강제금을 대폭 경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 관리 법률 시행령, 2015년 3월 25일)'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 기간(2016. 3. 25. ~ 2018. 3. 24.)내에 적법화해야 한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얻은 후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적법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산캠핑장, 글램핑 6동 설치

정읍시 오늘부터 운영… 별다른 캠핑장비 없이 여유있게 즐길 수 있어

정읍시가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최근 캠핑 트렌드에 발맞춰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에 럭셔리 글램핑 6동을 설치,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글램핑(glamping)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큰 준비 없이 자연 속 기분을 만끽하면서 편안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캠핑문화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캠핑 후 뒷 정리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 쉬운 일반 캠핑과 비교했을 때 여유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캠핑의 종류이다.

김생기 시장은 "값비싼 캠핑 장비 구입과 텐트 설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캠핑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글램핑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며 "새로운 글램핑 운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길 바라고, 캠핑객들의 캠핑에 필요한 먹거리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해 8월 개장됐고, 카라반 3동과 글램핑 6동, 오토캠핑 21면, 일반캠핑 17면 등 총 47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해 8월 개장됐고, 카라반 3동과 글램핑 6동, 오토캠핑 21면, 일반캠핑 17면 등 총 47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와 피크닉 테이블, 전기시설, 주차장 등이 기본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개장 이후 현재까 총4천465팀 1만8천여명이 이용, 명실상부한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명절 연휴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추석 당일 화장장에 한해 2회 차인 11시부터 3회(11시, 13시, 15시) 운영하고, 봉안당은 참배객 편의를 위해 5일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 연휴 정상운영

14~18일 화장장 · 봉안당 · 자연장 휴무 없이 운영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정상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명절 연휴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추석 당일 화장장에 한해 2회 차인 11시부터 3회(11시, 13시, 15시) 운영하고, 봉안당은 참배객 편의를 위해 5일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추모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근무하고 교통 및 주차안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봉안당 내의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 제례음식과 쓰레기는 되가져가실 것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생화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2일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297일 간 운영한 결과 화장은 총 3천77건으로, 1일평균 10건, 봉안당은 477기, 자연장은 330기를 안치하여 시민들의 장사복지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추석 공직기강 특별 감찰

김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점 감찰"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3만원·5만원·10만원 상한)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만큼 이번 공직감찰은 강도 높은 감찰이 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만남, 부정한 청탁 등을 중점으로 감찰하며 공직자 품위 손상, 갑질행태, 생활민원 분야 관리 소홀, 복지부동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엄중 문책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산면 체육회는 현금 120만 원을 기부했다. 라이스프라자는 백미 쌀 10kg 50포 (150만원상당)을 주산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추석을 맞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훈훈'

부안주산면, 쌀 등 기탁 이어져

주산면 관내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업체들이 추석을 맞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 산면 체육회(회장 박용석)는 추석을 앞두고 주 산면 체육회 이사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현금 120만 원을 기부했다.

주산면 체육회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전달하고 있다.

라이스프라자(대표 신정휴)는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라며 백미 쌀 10kg 50포 (150만원상당)을 주산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에 주산면사무소는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주 산면 체육회 회장 박용석은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명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종남 주산 면장은 "지역의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은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의회 "향토음식 발굴·육성 할 것"

박두기운영위원장 발의안 의결

김제시의회 박두기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되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김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김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품평회를 실시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선진견학,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는 예로부터 넓고 기름진 황금들녘에서 품질 좋은 지평선 쌀이 생산되고, 전국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청보리 한우, 갖가지 계절 따라 나는 제철 나물들이 진미를 이룬다. 특히나 차별화된 친환경 농축산물 8개 품목에 대해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엄격하게 품질관리 되고 있는 우수한 식재료 활용한 음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공동브랜드 등 우수한 농축산물을 이용한 차별화된 고유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발굴·육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맛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정읍시는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을 맞아 8일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기동 샘고을시장(구시장)에서 추석명절맞이 장보기행사와 함께 실시된 이날 캠페인에는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읍의용소방대(남대, 여대), 정읍지역자율방재단, 정읍자원봉사센터, 공무원 등 2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장 화재 예방요령과 소방출동로 확보 ▲귀성길 운전·비상 시 응급처지 등 건강한 명절나기 안전상식 ▲명절연휴 가스밸브·누전차단기 점검 등 우리 집 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새긴 어깨띠 착용과 현장 배너를 통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은상을 수상한 조성구 팀장은 총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일과 학업을 병행해왔던 사례를 진솔하게 표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보건소 조성구 팀장 은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검정형 자격 수기 부문에서 부안군 보건소 조성구(60·사진)팀장이 은상을 수상했다.

수기공모전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노력과 현실을 수기로 생생하게 조명해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우수사례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은상을 수상한 조성구 팀장은 현재까지 총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산업기술자격증과 원동기시공기능사 1급, 공조냉동기능기계사 등 법정 선임 자격증과 에너지 관리기능장, 배관기능장 등을 취득해 업무에 적용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해왔던 사례를 진솔하게 표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팀장은 "두 개의 기능장 자격 취득을 계기로 직업훈련 교사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가 되는 꿈을 꾸게 됐다"며 "교수가 돼 갖고 있는 재능을 사회의 필요한 곳과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성구 팀장은 현장에서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2013·2014년 2년 간에 걸쳐 25억 700만 원의 예산을 부안군이 지원받게 했다.

조 팀장은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1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회, 전북도지사 및 부안군수 표창 8회, 한국보일러운전관리 대상 한국보일러사랑재단 지원봉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